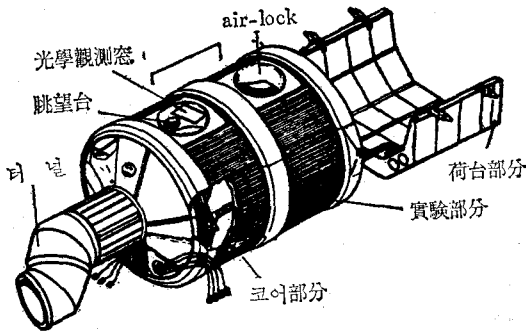


宇宙實驗室을 製作中

4인이 同時塔乘可能

4인이 同時에 最高 1個月동안이 나 宇宙에 滞在하면서 研究生活을



繼續할 수 있는 實驗室이 유럽宇宙 研究機關에 의해 製作이 開始되었다.

이 기관에는 西獨, 英, 佛, 伊, 和, 벨지움,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參與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目標은 宇宙自由化 時代가 올 것을 前提로 1980年代初에 發射가 可能하도록 準備하고 있다.

이 研究塔乘에는 健康한 男女라면 누구나 簡單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탈 수 있게끔 연구되고 있으며 그 우주실험실은 直徑 4.1m, 길이 7m의 圓筒形 密閉居住部分과 길이 3m의 荷台部分으로 構成된다.

거주부분에는 軌道에서 스페이스·샤틀에 移乘하는 터널이 붙어 있다.

실험실 속은 資料處理裝置 등이 있는 부분과 선반, 椅子만이 있는 實驗部分으로 나뉘어져 어느 곳도 空氣調節이 完全하며 內衣바람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퍼제트부분도 5區分되어 있으나 宇宙空間에 突出해 있어 高度의 眞空이나 無重力狀態를 必要로 하는 실험 때에는 실험장치나 試料를 두게 되어 있다.

憲法 法院의 判斷을 請求하였다.

提訴對象은 놀트라인·웨스트파렌州의 칼카에 1973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西獨最初의 高速原型爐(30萬kw出力)로서 1982년에 完工豫定이다. 제소理由인즉 從來의 輕水爐와는 달리 治安이나 國防上 國民의 安全에까지 미치지 될 高速증식로에 대해서는 行政府의 裁量만으로 計劃을 推進할 수 없다는 見解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프시론이란 重粒子

美 펠루미研서 發見

美펠루미加速器研究所는 陽子신 크로트론 400GeV의 實驗에서 새로운 素粒子를 發見하였다.

이프시론이라고 命名한 이 粒子의 質量은 양자의 10배가 되며 이제까지 발견한 것보다 가장 무거운 소입자라고 한다.

따라서 아주 새로운 未知의 素粒子籠이 있을 可能性까지 豫見하고 있다.

波濤를 利用한 發電所

日 海洋科學技術研서 踏査畢

日本海洋科學技術研究센터는 沿岸의 波濤를 막으면서 그 에너지를 利用한 發電裝置를 開發하여 山形縣 鶴岡市 由良地區를 發電所 建設 補 候地로 選定, 現地調査를 끝냈다.

해안에 밀어닥치는 파도의 힘은 幅 1m에 數 kw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여 日本 海岸線에는 4億kw나 되는 潛在에너지가 있다고 보고 이 발전장치를 하면 養殖漁業의 消波裝置가 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印度에 太陽發電所

西獨製 實驗用으로

印度의 매드리스에는 西獨製 實驗用太陽發電所가 지난해 11월부터 運轉을 開始했다. 發電能力 10kw의 이 發電機는 聯邦研究省의 太陽에너지研究計劃에 따라 建設된 것으로서 인도는 서독의 風車나 太陽發電裝置를 導入하여 自然에너지의 活用計劃을 세워놓고 있다.

高速增殖爐 違憲是非

西獨高等行政法院서 提起

플루토늄을 燃料로 하는 高速增殖爐의 建設是非가 西獨에서 벌어져 違憲與否訴訟까지로 發展하고 있다.

西獨민스터高等行政法院은 고속원자로의 建設許可節次를 規定한 現行 原子力法이 憲法(聯邦基本法)에 違反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聯邦